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Religious Motifs in Contemporary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oday's religious fashion motifs as elements for design development by examining the expression modes such as religious motifs in contemporary fashion. Methodologically,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of pictures and articles in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collection magazines and other related data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analyzed the collections of 1990 through 2009 with a focus on Christianity, Buddhism and Islam.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two expression modes of religious motif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The first expression mode was to employ the forms of religious costumes and their associated images. The second one was to take on religious symbols and their associated images.

주제어(Key Words) : 종교(religion), 종교복식(religious clothing), 종교적 상징물(religious symbol)

I. 서론

패션은 한 개인이나 사회, 문화, 시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서가치 내지는 신념까지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디자인들은 인체 위에서 특유한 미적 감각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간의 장르와 경계 초월의 경향은 각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하며 이를 통한 결과물들은 패션에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특히 한 개인이나 사회의 정신과 문화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 온 종교는 각 민족의 고유한 복식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슬람이나 청교도들의 복식과 같이 종교적 이념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대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종교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와 같은 첨단과학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학에 대한 회의, 자연환경의 황폐화와 그에 따른 지구 종말론의 등장, 인간성의 상실과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해 현대인의 관심을 종교와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1993년 8월 <Vogue>에서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곧 패션계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바 있듯이(정지년, 유영선, 2001),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의 모티브들을 활용한 작품들로 컬렉션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대패션과 관련한 종교에 관한 선행연구(고신천, 1988: 권영실, 조우현, 1997; 정지년, 유영선, 2001; 강림아, 이효진, 2003; 박주희, 2006; 서봉하, 김민자, 2008)는 중세종교복식이나 특정지역의 종교복식, 기독교나 불교 등 단일 종교복식과 관련된 현대패션의 연구 또는 종교복식을 활용한 디자인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와 패션의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들의 표현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모든 영역간의 장르와 경계 초월을 통해 보다 새로운 추구를 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종교적 모티브가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종교에 관한 개념과 특성, 종교적 모티브 등을 문헌고찰하고, 현대패션에 표현된 종교적 모티브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Vogue, Harper's Bazaar, Gap, Collections 등 국내외 패션컬렉션지의 작품사진과 기사, 인터넷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대상의 종교는 여러 유형의 종교 가운데 세계

3대 종교이며 패션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1990년 이후부터 2009S/S작품까지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종교적 모티브

종교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하여 질문하는데서 비롯하여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인간적 노력의 총체이며, 자연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초월적 힘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 신학자 Tillich는 종교란 “인간의 궁극적인 자기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고, 프랑스 사회학자 Durkheim은 “종교야말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서광선, 1997, p. 17)고 한바 있다.

종교의 기원에 대해 Frazer는 종교적 관념이 주술에서 시작하여 진화했다고 보았으며, 인류학자인 Tylor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령(精靈)에 대한 믿음과 그와 관련된 행위가 최초의 종교였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Ninian, 2004, p. 47). 모든 종교에서는 각각의 고유한 세계관을 가지며 그 세계관에 적합한 인간관을 소유하게 되는데(강영계, 1999, p. 118),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계층 간의 갈등과 인간성 상실에 의한 인간 소외, 윤리관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병리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의 한 부분을 종교가 할 수 있다고 하겠다(최재선, 1991, pp. 18-19).

종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헤아릴 수 없지만 크게 원시종교와 세계종교로 구분하기도 하고, 자연종교, 민족종교, 세계종교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종교가 얼마만큼 공적으로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원시종교인지 아니면 세계종교인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로 일컬어진다(강영계, 1999, p. 110). 각 종교의 종교복식을 중심으로 그 모티브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유럽에 기독교가 유입되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유럽의 예술, 문학, 사상 등 문화 전반에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는데(권영실, 조우현, 1997), 가톨릭에서의 종교의식을 전례의식이라고 하고 이 의식을 집행하는데 성직자가 신에 대한 축사를 드리 기 위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을 전례복이라고 칭한다(고신천, 1988). 전례복의 기원은 평상복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상류사회 사람들이 입던 의복을 제단에서 사

용하였고, 이 의복이 전례의식에서 계속 사용되어지며 내려오는 동안 평신도들은 차츰 입지 않게 되어 전례복으로 바뀌어 전해지게 되었다. 전례복은 착용순서와 방법에 따라 개두포와 장백의, 띠, 중백의를 내의로 입었고, 외의로는 제의와 법의, 갑바와 수단을 착용했으며 휘장으로 수대와 영대, 팔리움, 그 외 부속물로서 모관과 장갑, 신발과 양말 등을 착용하였다. 초기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룬 전례복은 종류가 다양하고 독특한 유래를 지니고 있으나 그 전형적인 형태와 유형은 중세 가톨릭 복식 형태와 변함없이 전승되어 왔다(강림아, 이효진, 2003). 기독교적 모티브의 유형 중 종교복식의 형태는 가톨릭 전례복 및 수녀복, 기독교 사제복, 중세 수도사들의 복식 등을 포함하며, 성화, 프레스코화, 모자이크화,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중세 기독교 미술과 건축, 조각, 그리고 X(CHI)·P(RHO)·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상징문자 및 십자가와 같은 문양, 예수, 성모마리아 등이 기독교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2) 불교

불교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절대자를 신앙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절대 경지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며, 개조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종교로서 원시불교의 신앙내용은 사제, 팔정도, 연기설이 핵심을 이루었다(강영계, 1999, p. 114). 불교 성립 당초에는 가사(袈裟)만을 법의(法衣)라 칭하였으나 전래과정에서 각 나라의 풍토에 맞게 고안되었고 가사 밑에 받쳐 입는 내의를 포함하여 승려의 몸에 걸치는 것은 모두 법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식 법의인 가사 외에 장삼(長衫), 동방의(東方衣), 승모(僧帽)와 여러 장식품이 있다(임영자, 1990, pp. 15-16).

불교 모티브의 유형 중 종교복식의 형태는 가사를 포함하여 승려가 착용하는 의류 전체인 법의를 포함하며, 불당이나 불탑, 불상과 같은 건축과 조각, 불화 및 불구·목어와 같은 다양한 불교 공예품, 길상을 상징하는 기호인 만(卍), 해탈의 법과 불신과 평등의 지혜가 합한 경지를 상징하는 삼보, 법륜, 연꽃, 염주 등이 불교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3)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예언자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형성한 종교이며, 이슬람교의 핵심은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아 집대성한 코란으로서 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은 코란의 해석에서 파생되었다(김진웅, 손영호, 정성화, 1998, p. 16).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서 완전한 전체가 된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 말은 '평화 안에 있으며 완전한 전체가 된다.'는 슬림(slm)을 어원으로 가진다(강영계, 1999, p. 113). 이슬람교도의 경전 코란에 나타난 의복에 관해 살펴보면 여성은 남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알라에 의해 창조된 부속물로 간주되며, 호사스러운 몸단장을 금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슬람교도 여성들에게 대중 앞에 나갈 때 얼굴과 몸을 가리는 베일을 쓸 것을 권하고 있으나 남성의 복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오경환, 1986, p. 116). 이슬람 여성들이 사용하는 베일의 종류는 다양하나 몸 전체를 감싸는 외투의 형태인 차도르(Chador)와 눈 부분은 망사로 된 가리개를 착용하고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Burqa), 눈은 보이도록하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인 니카브(Niqab), 아랍어로 베일이란 뜻의 머리에 쓰는 머리 스카프인 히잡(Hijab) 등이 대표적이다. 또 메카 순례 때 입는 백색의 재봉선이 없는 두벌의 옷인 이흐람(Ihram) 등이 있다. 즉 이슬람 모티브의 유형 중 종교복식의 형태는 차도르, 부르카, 니카브, 히잡, 이흐람 등 이슬람권 복식을 의미하며,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같은 건축과 조각, 회화 등이 이슬람교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라베스크 양식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활동한 고대 그리스 공예가들에게서 유래되었으나 1000년경 이슬람 공예가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개작하여 새·동물·사람 모양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매우 정형화되었고 이 양식은 이슬람 장식 문화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http://www.daum.net./dic100).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예술, 지식, 도덕, 법, 사회적 규범, 경제, 정치 등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세기 동안 예술가, 건축가, 음악가, 시인 등은 종교적 주제에 대해 그들의 창조적 노

〈표 1〉 종교적 모티브

구분	종교적 모티브	
	종교복식의 형태	종교적 상징물
기독교	가톨릭 전례복 및 수녀복, 기독교 사제복, 중세 수도사들의 복식 등	교회, 성당 등의 건축물과 조각, 성화, 프레스코화, 모자이크화, 스테인드글라스, 십자가, 예수, 성모마리아, 기타 상징문양, 문자 등
이슬람교	차도르, 부르카, 니카브, 히잡, 이흐람 등 이슬람 복식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같은 건축과 조각, 회화, 기타 상징문양 등
불교	가사, 장삼, 동방의, 승모를 포함한 승려가 착용하는 의류 전체인 법의 등 불교복식	승방, 불당, 탑, 불상 등의 건축물과 조각, 불화, 불구·목어와 같은 공예품, 삼보, 법륜, 염주, 연꽃, 길상의 의미인 만(卍)자 및 기타 상징문양 등

력을 바쳤으며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예술을 이용했다. 이러한 예술을 통한 종교의 표현은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 간에 일체감과 유대감을 갖게 한다(정지년, 유영선, 2001). 시,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사회에는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믿음 체계와 여러 양식 및 표상체가 있어왔고 현재에도 계속 존재한다. 미신, 불경, 성서 등은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며, 굿, 불공, 예배 등은 종교적 의식의 예가 되고, 성당, 사찰, 교회 등은 종교적 표상체이다(박이문, 1993, p. 2). 이러한 모든 것들과 종교적 이념이 표현된 건축, 조각, 회화 등의 예술품, 상징물 및 종교복식은 종교적 모티브라 말할 수 있는데,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의 종교적 모티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현대패션과 종교적 모티브

종교는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게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나 종파에의 소속, 믿음과 참여의 깊이 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세시풍속이나 의례, 민간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복식도 넓은 의미의 종교복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서봉하, 김민자, 2008).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이념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통하여 복식으로 표현되어 왔고, 특히 원시인들의 복식에는 종교적 또는 미신적 의미를 갖는 것들이 많았으며, 이것은 인간이 복식을 착용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6, p. 154). 또한 종교적 상징은 소수의 성직자가 착용하는 종교복식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전통적인 복식에도 뿌리 깊게 침투하여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패션에 있어 종교적 모티브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는데, 20세

기 초 Paul Poiret는 터번이나 카프탄 형식, 아라베스크 문양을 이용한 이슬람풍의 패션, 인도의 사리 등을 이용하여 종교적 모티브를 작품에 활용하였다. 또 1920년대에 Lanvin은 중세부흥주의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여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특히 기독교적인 모티브라 할 수 있는 중세 스테인드글라스에 대한 찬미에서 기인한 랑방 블루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1940년대에 이르러 Balenciaga는 인위적인 기교를 배제한 채 기하학적인 구조미와 추상적 입체감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구조적인 감각의 원천을 제공하였는데, 그 역시 종교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많은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수도사나 성모마리아 등 종교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 17세기 스페인 화가인 Zurbaran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많은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1>은 Zurbaran의 작품 'The immaculate conception'을 모티브로 한 검정을 소재의 시스드레스이다. <그림 2> 역시 마리아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중세 수녀복의 육중한 드레이프를 연상되며 검정 타프타 소재의 드레스와 부풀려진 케이프는 두 개의 구 형태로 이루어져 구조적인 형태미를 갖게 한다(김선영, 2001). 그리고 1960년대 등장한 히피들은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교 및 이슬람교 복식스타일을 반영하여 그들의 이상을 표출시켰으며, 1970년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스타일의 펑크족들은 유리세공의 목주나 십자가 문양의 프린트 및 장신구, 신성모독의 글귀가 프린트된 셔츠를 착용하는 등 반종교적인 패션으로 공격성과 사회로부터의 이탈, 소외 등을 나타냈다(<그림 3>). 이와 같이 종교복식이나 모티브는 반종교의 개념이나 금욕 등 정신적인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아래 패션 역시 문화적 다원주의, 절충주의, 혼성모방 등 다양한 양상을 선보임에 따라 종교적인 상징성이나 의미 대신 종교복식의 아이টে이나 이미지만을 패러디하는 작품들도 나타났다.

<그림 1>

좌)Zerbaran, 17세기
우)Balenciaga, 1949
(Balenciaga, p. 318)

<그림 2>

좌)Spain Maria Herera상
우)Balenciaga, 1950
(Balenciaga, p. 306)

<그림 3>

1970년대 Punk족
(Icons of Fashion,
p. 120)

〈그림 4〉
Moschino,
1987F/W
(Icons of fashion,
p. 136)

〈그림 5〉
Thierry Mugler,
1984F/W
(Fashion at the
edge, p. 70)

〈그림 6〉
Christian Dior,
2000F/W
(Fashion at the
edge, p. 52)

〈그림 7〉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8〉
Benjamin Cho,
2005F/W
(Vogue, 2005. 6)

1980년대 Moschino는 성스러운 가톨릭의 사제복인 수단을 하위문화를 대표하는 진 소재를 이용하여 작품으로 선보이거나, 〈그림 4〉와 같이 주교관을 헤어 장신구로 연출하는 등 종교적인 내적 의미 대신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작품에 이용하였다. 또한 1984F/W에 Thierry Mugler는 무대 위에 아기 천사, 두건을 쓴 수녀들이 늘어선 가운데 〈그림 5〉와 같이 마리아의 아이콘을 형상화한 의상과 함께 종교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컬렉션을 개최함으로써 스펙터클하면서도 화려하고 신비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인간이 옷을 착용한 이래 수많은 종교가 성립하거나 분파하면서 종교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복식행위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현대패션의 전개에 있어서도 종교적 의미의 내적 반영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단순 차용, 문화적인 절충과 혼성, 종교예술에서의 영감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종교적 특성이 내포된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개되고 있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 분석을 위해 1990S/S부터 2009S/S까지의 파리, 런던, 뉴욕, 밀라노 컬렉션 작품 중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의 종교적 모티브가 표현된 작품 총 742점을 사용하였고,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종교적 모티브의 유형에 따라 종교복식의 형태와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와 종교적 상징물의 직접적 활용과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유형을 분석하였다.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총 742점의 작품을 각 연도별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적 모티브는 세기말과 세기 초뿐만 아니라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현대패션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종교의 내적 의미 반영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연도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연도	빈도(%)
1990 S/S, F/W	16(2.2)	1995 S/S, F/W	21(2.8)	2000 S/S, F/W	57(7.7)	2005 S/S, F/W	44(6.0)
1991 S/S, F/W	14(1.9)	1996 S/S, F/W	26(3.5)	2001 S/S, F/W	55(7.4)	2006 S/S, F/W	29(4.0)
1992 S/S, F/W	19(2.6)	1997 S/S, F/W	54(7.3)	2002 S/S, F/W	92(12.3)	2007 S/S, F/W	67(9.0)
1993 S/S, F/W	20(2.7)	1998 S/S, F/W	36(4.1)	2003 S/S, F/W	43(5.8)	2008 S/S, F/W	36(4.9)
1994 S/S, F/W	22(3.0)	1999 S/S, F/W	40(5.4)	2004 S/S, F/W	17(2.3)	2009 S/S	34(4.6)

〈표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별 빈도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소계(%)	계(%)
종교복식의 형태와 이미지 차용	185(24.9)	110(14.8)	55(7.4)	350(47.1)	742
종교적 상징물의 직접적 활용과 이미지 활용	323(43.5)	69(9.3)	0(0.0)	392(52.8)	(100)

〈그림 9〉
Yves Saint Laurent,
2005F/W
(Vogue, 2005. 6)

〈그림 10〉
Givenchy,
1999S/S
(Vogue, 1999. 3)

〈그림 11〉
Rick Owens,
2009S/S
(Gap, Vol.85)

〈그림 12〉
A.F. Vandevorst,
2007S/S
(www. style.com)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0F/W
(Vogue, 2000. 9)

〈그림 14〉
Jean Paul
Gaultier,
2008S/S
(Gap, Vol.79)

의 전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총 742점의 작품 중 종교복식의 형태와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는 47.1%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복식을 활용한 경우가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불교복식이 14.8%, 이슬람복식이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적 상징물의 직접적 활용과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는 52.8%로 종교복식을 활용한 경우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종교복식의 형태나 이미지 차용에 비해 종교적 상징물을 활용하여 패션소품이나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기에 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기독교 상징물의 경우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불교 상징물의 활용은 9.3%로 나타났으며, 이슬람교 상징물의 활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1. 종교복식의 형태와 이미지 차용

현대패션에서 엄숙함과 신성함의 종교적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종교복식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복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은 대부분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하며 인체를 은폐하는 금욕적 형태의 실루엣을 나타내게 된다.

1) 기독교

기독교 종교복식의 모티브를 이용한 것은 사제복이나 수녀복의 개별적인 아이템 또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제들이 전례의식을 행하거나 기타 성무(聖務)를 행할 때 착용하는 제복 중 수단, 개두포, 장백의, 띠, 제의, 법의, 영대 등에는 기독교의 종교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고유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는데(김희

신, 1993), 1990년대 초반에는 중세풍 패션이 유행하면서 사제복이나 수녀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Ralph Lauren은 수녀복 같은 엄숙함이 느껴지는 드레스를 디자인했고, Romeo Gigli는 중세 수도승을 연상시키는 후드가 달린 맨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였으며, Jean Paul Gaultier는 수녀복의 베일을 모티브로 금욕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최수현, 2005). 〈그림 6〉은 다양한 시대와 계급의 모델들을 등장시켜 가장 무도회와 같은 컬렉션을 개최한 2000F/W Christian Dior 컬렉션 중 교황의 복식을 패러디한 것으로 신비로운 색채와 화려한 소재로 성스러움과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또 〈그림 7〉은 2002S/S Arkadius 작품으로 미사 집행 시 사제가 목 뒤로 걸어서 몸 앞 양쪽에 길게 늘어뜨리는 영대를 착용하여 종교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그림 8〉은 긴 목주를 마치 목걸이처럼 연출하고 사제복을 모티브로 비치고 하늘거리는 소재의 블라우스로 표현한 것으로 종교복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05F/W에 Yves Saint Laurent 역시 〈그림 9〉와 같이 17세기 플랑드르 그림들에 나오는 수녀들과 성직자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높은 칼라의 셔츠와 슈트, 성가대원들의 복장에서 볼 수 있는 프릴 달린 높은 칼라, 성직자의 사제복 아이템을 변형한 타이트하고 심플한 슈트나 원피스들로 종교적인 엄격함과 동시에 여성적인 관능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수녀복의 형태나 아이템을 차용한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10〉은 금욕적인 이미지의 수녀복 안에 광택소재의 붉은 미니 원피스를 착용하여 수녀복을 벗음으로써 나타나는 의외적인 유희의 이미지를 제공한 것이다. 〈그림 11〉역시 청순한 이미지의 모델들에게 머리에는 수녀 베일을 연출시키고 주머니봉지와 같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종교적인 모

〈그림 15〉
Karl Lagerfeld,
1997S/S
(Vogue, 1997. 2)

〈그림 16〉
Ji Haye,
1999F/W
(Vogue, 1999. 9)

〈그림 17〉
이영희,
2001F/W
(Vogue, 2001. 5)

〈그림 18〉
Hussein Chalayan,
1998S/S
(www. style.com)

〈그림 19〉
Miguel Adrover,
2001F/W
(www. style.com)

〈그림 20〉
Miguel Adrover,
2001F/W
(www. style.com)

티브와 아방가르드한 패션연출의 혼합으로 유희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며, 〈그림 12〉와 같이 화이트 트렌치코트와 베일의 조합, 입에 붙은 X자 테이프로 금욕적인 종교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성하고 엄숙한 종교적 의미를 소멸시키고 다양한 디자인의 요소와 이미지가 조합되어 그 본래의 의미가 사라진 채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순수하고 신성한 영역이 패션과 결합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의 영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종교의 영역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알리고자하는 의지이고, 또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 하겠다.

2) 불교

불교복식에 있어서는 승복의 형태나 착장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그림 13〉은 인도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2000F/W Jean Paul Gaultier 작품으로 승복인 가사의 착장방식을 차용하였으나 가닥가닥 잘려진 드레스 밑단으로 울동감을 갖게 하며 체크무늬원단으로 기존의 전통미를 거부하고 디자이너의 독특한 감각으로 해체, 조합시킴으로써 문화와 종교의 혼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4〉는 인도의 수도승이 연상되는 사리의 착장방식과 터번을 이용해 고급스러운 쿠티르 드레스로 표현한 작품이다. 또 〈그림 15〉와 같이 승복을 보다 단순하고 캐주얼한 감각으로 표현하기도하고, 〈그림 16〉과 같이 가사의 형태를 모티브로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조각보처럼 이어 붙이고 차이나풍의 슈트 위에 레이어드시킴으로써 종교적인이미지와 민속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갖게 하였으며, 〈그림 17〉은 승복의 장삼 형태를 모티브로 누빔 드레스로 표현함으로써 금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승복의 형태나 착장방식을 활용하

는 것 외에 특정지역의 종교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에 모티브를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Donna Karen은 2000년 6월 〈Vogue〉지에 ‘신성함 영감’이라는 주제로 부탄(Bhutan) 승려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붉은색 코트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3)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종교복식과 그 특징은 아라비아 복식에서 알 수 있는데, 강한 태양,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내 수분유지를 위해 얼굴, 손, 발을 제외하고 거의 전신을 감싸는 형태의 그들의 복장은 오랜 관습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었고 이슬람교도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Ross, 1993, pp. 13-14). 현대패션에 있어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카프탄 형식이나 터번, 할렘팬츠, 차도르 등 다양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종교적이면서도 민속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은 Hussein Chalayan의 1998S/S컬렉션으로 이슬람권에서 입혀지는 종교복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박스 실루엣으로 온몸을 철저히 은폐시키는 금욕주의적인 종교적 분위기와 다문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눈만 내놓은 니카브와 같은 베일을 착용하고 등장하였는데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하체를 다 드러내기도 하였고, 온 몸을 차도르로 감싸고 등장하는 등 단지 보이게 하는 욕망이 아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내면성으로의 복귀를 나타내는 특징을 표출하고 있다(김태연, 1996). 또 2000S/S에 Alexander McQueen은 전신을 감싸고 베일을 두르는 형태의 이슬람교 종교복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이국적이면서도 전위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슬람권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개최한

Miguel Adrover는 〈그림 19〉와 같이 카프탄 스타일의 긴 드레스와 터번 등으로 종교와 문화의 혼성으로 다문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그림 20〉과 같이 머리부터 상반신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같은 베일을 착용시켜 금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패션의 연출은 단순히 종교복식을 모티브로 한 것뿐만 아니라 서구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었던 소수민족과 하위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어떤 요소를 차용하여 그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화려함과 혐오스러움, 노출 등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현대패션에 대한 반감과 인간 본연의 모습과 내면에 대한 성숙 등 자기성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복은 종교적 의미 및 가치관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에 많은 종교적 의미와 암시를 상징하고 있으며 신분, 품위, 제사의 거룩함과 성스러움, 종교집단 속에서 개인의 역할 및 지위, 그리고 상황 등을 상징하게 된다(김희선, 1993). 그러나 현대패션에 있어 이러한 종교복식의 형태나 이미지는 그 내적 의미보다는 이미지나 형태만을 차용하여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요소로 사용되거나, 금욕적이고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이미지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목성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스럽고 신비스러움을 나타내는 종교복의 이미지 차용을 통해 도덕적 만족감 및 자기 초월의 의지를 내재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 종교적 상징물의 직접적 활용과 이미지 차용

각각의 종교에는 상징물이 있으며 이를 일상복에서 차용

함으로써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자하는 부적 같은 의미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도 한다. 또 종교적인 성화나 불화, 사원·성당·탑과 같은 건축물이나 조각, 스테인드글라스 등과 같은 예술품들은 종교적인 신비감을 줌과 동시에 인간에게 심미적으로 내적 만족감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 역시 현대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다.

1) 기독교

기독교 상징물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라 할 수 있다. 2002S/S에 Victor&Rolf는 모든 의상을 화이트로만 구성하고 과장된 리본장식과 하트장식, 그리고 십자가와 하트가 달린 굵은 체인 등을 이용해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컬렉션의 배경이 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성스러우면서도 엄숙한 종교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Christian Dior 역시 2006S/S에 글로벌 테러리즘과 혁명으로 불타는 프랑스 혁명을 중세 고딕풍의 글래머러스한 스타일로 연출하였는데 〈그림 21〉과 같이 십자가 목걸이를 함께 연출하여 그로테스크한 유희적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2008F/W에 Givenchy의 Riccardo Tisci는 테일러링에 기초한 고스 스타일을 표현하면서 〈그림 22〉와 같이 블랙팬츠슈트에 십자가가 주렁주렁 매달린 여러 겹의 골드체인 목걸이로 종교적이라기보다 모던하면서도 낭만적인 특유의 고스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목걸이나 브로치와 같이 액세서리로 연출되기도 하고, 〈그림 23〉과 같이 드레스 위에 화려한 비즈 장식으로 장식되거나, 프린트되기도 하고, 〈그림 24〉와 같이 드레스 전면에 기독교적인 다른 상징물들과 함께 금, 은사로 자수 장식되거나, 〈그림 25〉와 같이 드레스 전체에 걸쳐 수많은 십자가와 체인으로 콜라주 되고 심지어 스타킹의 장식

〈그림 21〉
Christian Dior,
2006S/S
(Gap, Vol.15)

〈그림 22〉
Givenchy,
2008F/W
(Gap, Vol.82)

〈그림 23〉
Alexander
McQueen,
2007F/W
(www. style.com)

〈그림 24〉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25〉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26〉
A.F. Vandevorst,
2007S/S
(www. firstview.com)

〈그림 27〉
Dsquared 2,
2005F/W
(www. style.com)

〈그림 28〉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29〉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30〉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31〉
Jean Paul Gaultier, Jean Paul Gaultier,
2007S/S
(www. style.com)

〈그림 32〉
Jean Paul Gaultier, Jean Paul Gaultier,
2007S/S
(www. style.com)

으로까지 표현되어 컬렉션의 종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십자가 외에 목주 또한 목걸이와 같은 형태로 연출되거나, 〈그림 26〉과 같이 의상 위에 여러 개의 목주를 중첩시켜 마치 체인장식을 한 것처럼 연출시켜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 컬렉션의 장소를 성당이나 교회에서 개최하여 종교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키기도 하는데, 2001F/W Imitation of christ는 데뷔 컬렉션을 교회에서 장례식과 같이 연출하여 기존에 터부시 되었던 종교라는 테마와 죽음이라는 코드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2004S/S에 Riccardo Tisci 역시 커다란 십자가와 장례예배용 장작더미 등이 낙엽과 함께 쌓여있는 무대에서 한편의 퍼포먼스 같은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하였고, 2005F/W에 Dsquared 2는 무대를 교회 안과 같이 설치하고 흑인 가스펠 송을 곁들여 컬렉션을 개최하였는데, 〈그림 27〉과 같이 Jesus loves me 또는 angel, faith 등 종교적인 문구들이 쓰인 의상들을 선보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종교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Arkadius는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나타내는 컬렉션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2002S/S에는 컬렉션 주제가 'Virgin Mary Wears the Trousers'로 〈그림 28〉과 같이 성모마리아, 흑색십자가, 은색가시 면류관 등 가톨릭의 도상적인 것들을 활용하였다. 또 〈그림 29〉와 같이 금빛 브로케이드 소재와 후광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치 비잔틴의 이콘화를 재현한 것과 같은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것은 가상적인 슈퍼 히어로의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있어 성스럽고 권위 있는 절대자의 상징인 태양광선과 성모마리아의 도상을 차용한 것이며 (Quinn, 2003, pp. 91-92), 이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는 〈그림 30〉과 같이 가시 면류관을 쓴 채 각종 종교적인 상징물을 망토에 가득 매달고 등장한 피날레로 강한 인상을 갖게 하였다. 또 2004S/S에는 'glory, glory, hallelujah'를 부르는 찬양 음

악을 배경으로 컬렉션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찬송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다윗의 별, 아랍의 터번도 등장시켜 전체적으로 세계평화를 주제로 삼기도 하였다(박주희, 2006).

패션디자이너에 빛을 활용하는 것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움에 대한 염원이나 동경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2007S/S에 Jean Paul Gaultier는 성모마리아를 주제로 쿠투르 컬렉션을 개최하면서 〈그림 31〉과 같이 종교적 권위와 신상의 의미로 성상의 뒤를 장식하는 후광을 헤드 장식으로 이용하여 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고, 〈그림 32〉와 같이 스테인드글라스나 성화의 이미지를 프린트나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가톨릭 전례의식이나 성물장식에 사용되는 레이스나 크로셰 장식을 가운데로 활용하였는데 다양한 종교적 상징물은 Gaultier만의 스타일과 조합되어 쿠투르적인 감성을 나타냈다.

또 Burke가 공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적극적인 고통과 닮은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시각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은 숭고한 것이 된다(최수현, 2005)고 하였듯이, 종교적인 상징물을 이용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및 종교적 숭고성까지 느끼게 한다. 〈그림 33〉은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의 장식을 붉게 물들은 십자가가 관통하는 형상으로 연출한 Arkadius의 작품으로 공포와 종교적인 엄숙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1996F/W에 Alexander McQueen은 전쟁과 관련한 종교적인 컬렉션을 개최하였는데 빅토리안 교회의 음악과 대포의 발포소리, 하드코어 클럽의 트랙 등이 혼합된 배경음악, 해골이나 괴기스러운 액세서리 등으로 컬렉션의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림 34〉는 사진작가인 Don McCullin의 전쟁 속에서 총을 쏘는 군인의 사진이 프린트된 재킷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이 달린 검은 색 마스크를 머리 부분에 착용한 모델의 모습으로 죽음의 희생자들에 대한 종교적인 엄숙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림 33〉
Arkadius,
2002S/S
(www. style.com)

〈그림 34〉
Alexander McQueen,
1996F/W
(Fashion at the
edge, p. 158)

〈그림 35〉
Vivienne Tam,
2007F/W
(www. style.com)

〈그림 36〉
Vivienne Tam,
2008F/W
(2008 Catalogue)

〈그림 37〉
Givenchy,
1998S/S
(www. style.com)

〈그림 38〉
이상봉,
1998S/S
(Vogue, 1998.3)

2) 불교

불교적인 상징물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특히 중국 출신의 디자이너 Vivienne Tam은 동·서양의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혼합을 디자인에 표현하였다. 1997S/S에 갈색 시스루 소재의 원피스 전면에 부처도상을 프린트한데 이어, 2007F/W에는 〈그림 35〉와 같이 부처도상을 원피스의 뒷면 전체에 걸쳐 무채색 위주의 색상으로 전사시켜 나타냈고, 2008F/W에는 〈그림 36〉과 같이 단순한 원피스에 구름문양과 불상의 형태를 콜라주하여 부조적인 장식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불상과 같은 조각뿐만 아니라 종교 건축물의 모티브가 반영된 복식 또한 강한 종교적 암시를 지니게 되는데, 1998S/S에 Givenchy는 〈그림 37〉과 같이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사찰과 정원을 머리장식으로 오브제화하여 표현하였고, 국내 디자이너 이상봉은 불교에서 대자대비와 태양을 상

징하는 연꽃을 〈그림 38〉과 같이 대나무로 짠 뷔스티에 위에 자수하여 자연적이면서도 동·서양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종교적 진리와 의미의 가치를 떠나 불교적인 상징물의 단순차용을 통해 장식성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종교이미지와와의 혼합으로 신비로움까지 느끼게 하였다.

3) 이슬람교

기독교와 불교적인 종교복의 형태나 상징물들을 이용하여 현대패션에 다양하게 활용한데 반해 이슬람교의 경우 종교복식의 형태나 아이템을 차용한 것 이외에 건축이나 공예, 조각 등 이슬람교의 상징물을 모티브로 활용한 경우는 다른 종교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종교적 메시지나 상징물, 예수나 성인의 이미

〈표 4〉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		
종교 복식의 형태와 이미지 차용	기독교	· 사제복이나 수녀복의 형태를 차용하여 종교적 이미지 부각 · 사제복, 수녀복의 아이템이나 디테일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변형하거나,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
	불교	· 승복의 착장방식과 형태를 이용하여 캐주얼한 감각으로 또는 쿠티르 드레스로 표현 · 승복의 형태와 다른 민족적 복식의 아이템 혼합으로 절충적 이미지 표현
	이슬람교	· 카프탄과 같은 의복의 형태차용 및 터번과 같은 아이템의 활용 · 차도르, 부르카, 니카브와 같은 베일을 활용하여 금욕적 이미지 부각
종교적 상징물의 직접적 활용과 이미지 차용	기독교	· 십자가, 묵주 등을 목걸이, 브로치로 활용하거나 프린트, 비즈장식, 자수, 콜라주 등의 표현기법을 통해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 · 기독교적인 문구, 성모상이나 아기예수 이미지를 프린트하거나 가시면류판, 성물 등을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 · 컬렉션의 장소를 교회나 성당에서 개최하여 종교적 이미지 부각 · 중세 스테인드글라스의 이미지 차용 및 예수상이나 성상의 후광의 이미지 활용하여 신비적 이미지 강조
	불교	· 부처상이나 불상, 구름문, 연꽃 등 불교적 상징물을 프린트, 콜라주, 자수 기법으로 활용하여 종교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 · 사찰의 조형물을 헤어장식으로 활용하거나, 염주 등을 액세서리로 활용
	이슬람교	· 이슬람교의 상징물을 활용한 예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지 등을 활용한 작품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각각의 상징물에 대한 내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 컬렉션의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현대사회의 다문화적인 요소를 나타냈으며, 또 패션디자인에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됨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나 집단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까지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종교적 모티브는 급속한 변화와 함께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 종교에 의지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의 한 표현방법이며, 동시에 종교적 모티브를 하나의 장식의 도구로 삼아 육체적, 심미적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IV. 결 론

인간은 신이나 영혼의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인간은 가장 완전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초월적 신의 경지에 비유하게 되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심미적인 욕구를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들의 표현유형을 고찰한 것으로 모든 영역간의 장르와 경계 초월을 통해 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종교적 모티브가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유형은 첫째, 종교복식의 형태와 이미지 차용으로 엄숙하고 신성한 종교적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 사제복이나 수녀복의 형태를 차용하거나 이러한 복식의 개별적인 아이템 및 디테일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 또는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불교복식의 경우 승복의 착장방식을 활용하거나 다른 민속적 복식의 아이템과 혼합하여 절충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이슬람교의 경우 카프탄 형식이나 차도르, 부르카, 니카브와 같은 다양한 베일을 활용하여 금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즉 현대패션에 있어 종교복식의 형태나 이미지는 그 내적 의미보다는 이미지나 형태만을 차용하여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요소로 사용되거나, 금욕적이고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이미지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목성을 갖게 하였다. 둘째, 종교적 상징물의 직접적 활용과 이미지 차용이다. 기독교의 경우 십자가, 묵주 등을 목걸이, 브로치로 활용하거나 프린트, 비즈장식, 자수, 콜라주 등의 표현기법으로 나타냈으며, 가시면류관, 성물, 예수상이나 성상의 후광의 이

미지, 중세 스테인드글라스의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장식적이면서도 신비로움을 나타냈다. 특히 컬렉션의 장소를 교회나 성당에서 개최하고 가스펠송, 성가대의 합창, 중세 교회음악 등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엄숙하면서도 종교적인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불교의 경우 부처상이나 불상, 구름문, 연꽃 등 불교적 상징물을 프린트, 콜라주, 자수기법으로 표현하거나, 사찰의 조형물 및 염주 등을 연출소품으로 활용하여 종교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경우 종교적 상징물을 이용한 사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물을 활용한 작품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각각의 상징물에 대한 내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 컬렉션의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현대사회의 다문화적인 요소를 나타냈으며, 패션디자인에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됨으로써 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패션의 세계는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왔으며,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가치들로부터의 영감들은 옷의 미학과 어울려 하나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이 중에서도 종교적인 모티브야말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패션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같은 표현은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경향에 반하여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인간의 내적 성숙과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내면으로의 복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모티브들을 앞으로의 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과 시대의 트렌드 및 미래적인 요소들과 조화시켜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전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림아, 이효진(2003). 현대패션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조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11(5), 119-134.
- 강영계(1999). **종교와 인간의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고신천(1988). 중세 기독교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실, 조우현(1997).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4), 19-30.
- 김선영(2001).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웅, 손영호, 정성화(1998). **서양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태연(1996).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선(1993). 현재 우리나라 가톨릭사제복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1(1), 69-80.
- 박이문(1993). **종교란 무엇인가-종교철학**. 서울: 일조각.
- 박주희(2006). 현대패션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광선(1997). **종교와 인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서봉하, 김민자(2008). 종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복식미의 연구. **복식**, 58(2), 93-106.
- 오경환(1986).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임영자(1990). **한국의 종교복식**. 서울: 아세아문화사.
- 정지연, 유영선(2001).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 특성. **복식**, 51(5), 45-59.
- 최수현(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숭고미에 관한 연구. **복식**, 55(7), 114-130.
- 최재선(1991).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바울서신사.
- Ninian, S.(2004). **세계의 종교**. 윤원철(역). 서울: 예경. (1998년 원저발간)
- Ross, H.(1993). *The Art of Arabian Costume*. New York: Players Pr.
- Quinn, B.(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Burg.
- <http://www.daum.net./dic100>

접 수 일 : 2010년 4월 26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7월 23일